실속 재테크

주가연계증권(ELS)

박스권 장세때 위험줄이며 고수익 창출

상품유형에 따라 원금 보장도 가능

중도 환매 제한… 조건 꼼꼼히 따져야

누구나 재테크를 고민하지만, 막상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은행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율이 신통치 않고, 그렇다고 주식을 택하자니 문외한이기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진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주가연계증권(ELS)에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ELS는 투자자금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분을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펀드투자 보다 위험을 줄이면서 확정금리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환매했을 경우 기준가의 90% 이상만 지급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원금보장형 ELS라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어떤 상품 있나=광주은행이 판매중인 ELS(원금비보장형)는 우리금융과 삼성화재의 주가를 연계한 상품으로 모집일(매주 금요일 오전)에 우리금융·삼성화재의 종가를 기준가로 한다. 이 기준가를 토대로 6개월 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예컨데 가입시점에 우리금융의 종가가 1만원이었다면, 6개월 동안 9천원 이상만 유지하면 투자금을 조기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당초 기준가 보다 45% 이상 빠졌을 경우 원금 손실도 생길 수 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로 최고 연 15%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광주은행 관계자는 설명한다.

광주은행은 또 유사한 조건으로 코스피200과 항생H 지수를 연계한 상품도 모집하고 있다.

한화증권도 코스피200지수와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지난달 1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한화스마트ELS 255호'(만기 1년6개월, 최고수익률 연 6.66%)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원금보장형 상품이고, '한화스마트ELS 256호'(만기 2년, 최고 연 18.3%)는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삼았으며 투자 기간 내 등락과 무관하게 만기 평가일 당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5% 이상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상품의 조건과 특징 꼼꼼히 따져야= ELS는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매에 제약이 많다.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때는 기준가의 90% 이상만 지급한다. 주가가 하락했을 땐 원금 보장형 ELS라고 해도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 보장형은 기대수익률이 낮은 편이고, 원금 비보장형은 기대수익률이 크다.

보통 코스피200지수처럼 변동성이 작은 기초자산을 쓰면 원금은 보장되나, 기대 수익률은 10%대로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비해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원금비보장형 ELS는 수익률이 20~30%대까지 나온다고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ELS 상품은 주가 대세상승기나 대세하락 시기보다는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형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가연계증권(ELS)

특징	• 투자액의 일부를 주가지수 또는 옵션에 투자해 미리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화 상품
장점	• 다양한 투자 성향을 충족할 수 있음 (상품 유형에 따라 원금 보장도 가능) • 조건 충족하면 확정된 수익 지급 • 설계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
단점	•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발행자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원금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예금자 보장이 되지 않음 • 환매 등 유동성에 제약이 있음 • 수익 구조가 복잡함

'유통공룡' 롯데 더 커졌다

'바이더웨이' 이어 GS백화점·마트도 인수

롯데그룹이 지난달 25일 편의점 '바이더웨이' 인수에 이어 GS스퀘어(백화점) 및 GS마트도 손에 넣음으로써 국내 최대 유통기업군으로 자리를 굳혔다. GS리테일은 9일 대형마트 및 백화점 사업부문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GS마트(14개 점포), GS스퀘어 백화점(3개 점포)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금액은 1조3천40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인수금액에는 마트 부문의 신규 점포 부지와 현금자산 등이 포함됐다.

롯데는 GS마트와 GS스퀘어 백화점사업부의 임직원 2천600명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고, 이들에 대해 4년이상 고용보장에도 합의했다.

롯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GS백화점과 GS마트를 롯데쇼핑에 합병하는 한편 GS스퀘어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으로, GS마트는 롯데마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롯데는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인수합병(M&A)으로 부상했던 GS마트·백화점과 바이더웨이 인수전에서 모두 승리해 백화점 부문을 비롯해 대형마트, 편의점, 아웃렛, TV홈쇼핑 등 유통업 분야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기존 '유통강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유통공룡'으로 불릴 정도로 몸집이 커진 것이다. 자칫 독과점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다. /연합뉴스

올 설엔 아이에게 한복 입혀볼까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행사장에서 열리고 있는 '명절맞이 아동한복 제안전'을 찾은 소비자가 어린이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형마트 할인경쟁에 '동네슈퍼' 80% 피해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8곳은 최근 대형마트의 할인 경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동네 슈퍼 2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대형마트 간 할인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또는 '매우 크다'라는 의견이 79.2%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대형마트 가격 할인 경쟁에 의한 고객·매출액 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1%가 '20~30%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30~50% 감소'는 26.9%, '10~20% 감소'는 24.4%였고,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11.9%나 됐다.

또 대응전략(복수응답)으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라는 의견이 73.8%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28.3%가 대형마트의 가격할인 경쟁이 계속된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대형마트보다 물건을 비싸게 공급받는다는 답변도 29.9%나 됐다. /연합뉴스

라마다플라자 호텔 '졸업&입학' 이벤트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해피 그래듀에이션 앤 애드미션'(Happy Graduation & Admission : 졸업 & 입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졸업과 입학 증서를 제시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3층 일식당 '비쇼'와 17층 양식당 '파라뷰'에서는 졸업 및 입학생을 동반한 4명 이상 고객에게 1명분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3명 이하 고객에게는 1명분을 50% 할인한다.

또 '파라뷰' 레스토랑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특선 메뉴를 오는 14일까지 선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소득 여성 급속히 증가

종합소득세 상위 30%에 여성 비중이 26.4% 차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 고소득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356만4천명 중 여성은 143만8천명(40.3%)으로 처음으로 40%가 넘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매년 5월 확정 신고를 한다.

이는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여성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합소득금액 상위 30% 이내에서 여성 비중은 전체 신고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빨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금액 여성 신고 인원이 2005년 80만7천명에서 2008년 143만8천명으로 78.2% 증가하는 동안 상위 30% 이내 여성은 15만5천명에서 28만2천명으로 81.8% 늘었다. 이 기간 상위 30% 이내 신고자의 여성 비중도 22.8%에서 26.4%로 커졌다. /연합뉴스